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가방엔 선재동자 … 핸드폰엔 아기부처님

불교캐릭터상품 '눈에 띄네'

신세대불자 포교에 한몫
30여종 보급…아직 걸음마
교계차원 관심·투자 필요

◇불교캐릭터를 이용한 독특한 상품들이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부처님 캘린더.

◇신세대불자들 사이에서 아기부처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유행이다.

◇다양한 표정의 동자를 응용한 열쇠고리.

"와! 그 아기부처님 스티커 참 귀엽다. 어디서 샀니?" "응, 조계사 근처 불구용품점에 가면 구할 수 있어."

요즘 신세대 불자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에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스티커 붙이기가 유행이다. 최근 선보인 다양한 모습의 이 캐릭터 스티커는 휴대폰 악세서리 하나에도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신세대불자들에게 새로운 포교매체로 다가서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불자들도 책가방에 이 캐릭터를 이용한 버튼을 달고다니는가 하면 어린이법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연꽃 지우개와 연필, 노트 등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또 선물을 고를때에도 불교 캐릭터상품을 택하는 불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캐릭터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를 만나게 되는 날이 불교의 세계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세대들사이에서 캐릭터 상품은 이미 보편화된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상품의 결풍속에서 신세대불자포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불교캐릭터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움직임도 서서히 일고 있다.

불교문화캐릭터 개발업체 와이드스코프는 최근 무섭게만 느껴지는 사천왕상과 제석천 등을 귀엽고 세련된 불교캐릭터로 개발해 신세대 포교에 나섰다. 20대불자들로 구성된 와이드스코프는 범천, 용, 코끼리, 금강역사, 팔부중, 약사여래, 지장보살 등의 캐릭터 작업도 전개해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는 팬시용품과 만화, 컴퓨터게임등도 독자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와이드스코프 아트디렉터 표성중씨는 "불교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 불교 혁신을 위해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캐릭터의 개발과 활용"이라면서 "캐릭터를 통한 불교문화의 재발견과 활발한 가치창조는 21세기 불교문화 구축 및 포교를 위한 효과적 언어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재동자, 아기부처님, 연꽃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후반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시작됐다. 처음 연꽃이나 만자, 동자 등의 단순한 모양을 활용해 만든 불교팬시용품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일기 시작한 불교캐릭터 상품은 전문제작업체가 등장하면서 상품도 한층 다양화되고 시장도 점차 형성돼 갔다. 선재마을은 9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재동자 캐릭터를 개발해 선재동자잡계, 라홀라 종걸이, 선재동자 알림판, 개량형 바람, 도자기, 목걸이 등 선재동자 캐릭터를 응용한 불교팬시용품들을 선보였다.

◇불교나라가 선보인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스티커.

96년부터 조계종봉축위원회가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포교의 기치를 앞세우며 부처님 오신날 등장시킨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캐릭터는 포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불교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봉축위는 이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캐릭터를 응용한 어린이 셔츠, 학용품, 열쇠고리, 버튼, 차량용스티커, 컵, 부채, 시계, 풍선, 슬리퍼, 모자, 유니폼, 공책, 엽서, 공중전화 카드 등 광범위한 물품을 제작해 본격적으로 캐릭터상품 판매의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밖에 불교팬시용품판매업체인 불교나라에서는 핸드폰 등에 부착하는 미니스티커, 열쇠고리, 달력, 시계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 편의점과 팬시전문점에 납품판매하고 있는 등 현재 10여개 업체에서 30여종의 상품이 제작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캐릭터 상품의 기본 소재가 연꽃, 동자, 부처님등으로 한정돼 있고, 보급망도 불구점과 사찰직영매장, 제작업체와 사찰의 직거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선재마을 유지선법사는 "불교캐릭터 상품의 대부분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하는 반짝 경기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할 유통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운데 하나"라면서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닌 21세기를 짊어질 신세대 불교포교방안으로 불교캐릭터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명 캐릭터상품의 상당수가 출판만화나 만화영화, 영화, 드라마,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기와 팬을 확보해 퍼져 나간 것에 비해 불교캐릭터상품의 경우 캐릭터부터 먼저 개발해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캐릭터 시장의 90% 이상을 외국 캐릭터들이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캐릭터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불교캐릭터산업은 자체의 수익과는 별도로 21세기 불교포교의 새로운 혁명과도 직결되는 많은 파생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관음손이 개발한 동자저금통과 스프링인형.

◇제석천. ◇서방 광목천.

◇최근 복원된 아유타야에 있는 길이 50m의 거대한 와불.

◇순례단은 붓위라딧사원의 부속고아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태국 성지순례記

생동하는 불심 경제위기 극복
곳곳에 사원·불상·탑 보존

태국 불교가 역동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눈에 '보여주는 불교'로만 비춰졌던 태국불교가 이제는 '생동하는 불교'로 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불심으로 극복해 내고 있다. 불교계가 앞장서 경제 위기 극복법회를 열었는가 하면, 빈민층을 위해 각 사찰들이 무료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 환영을 받고 있다. 또 광화, 인권문제 등 사회문제에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불교에 무관심했던 부유층들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태국관광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의 후원으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국내 불교계 인사 초청 '성지순례'는 태국 불교의 내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순례 첫날 도착한 불교 유적지 아유타야는 우리의 경주와 같은 곳이다. 사원만도 5백여개가 있으며 발길 닿는 곳곳마다 불상과 탑이 숨쉬고 있다. 그 거대함과 장중함이 과거 아유타야 왕조의 영화를 말해주는듯 했다.

프라시산펫, 나프라멘, 야차이몽콘 등 이곳의 대표적 사원들은 외침으로부터 불교를 지키기 위한 태국인들의 의지가 그대로 서려 있다. 상당수 유적은 외침으로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보수·복원되고 있으며, 모든 유적마다 대형 서치 라이트를 설치해 밤에 불을 밝혀 놓았는데, 어둠 속의 유적들은 도시 전체를 '부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장관을 연출해 냈다.

◇방콕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선보인 불탑모양의 성화대.

이곳 사원들은 최근 몇년새 복지 사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수행만을 강조해오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사찰이 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붓위라딧 사원은 3백여명의 고아를 수용하는 부속 고아원을 갖추고 있다. 한국말 현수막을 들고 순례단을 맞은 고아원 관계자들은 같은 불자라는 친절한 미소로 반겼으며, 순례단이 가져간 위문품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합장인사로 답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언어는 달라도 모두가 부처님 집안의 한 식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지를 방콕으로 옮기고 들러 본 트라이밋, 아룬(새벽사원), 포우, 타마몽콘, 에머랄드 '사원과 왕궁은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려는 관광객들의 움직임으로 땀에 젖어 들었다. 에머랄드 사원의 경우 보수를 위해 걷은 기부금이 남았다는 가이드의 말에서 전국민의 95%가 불자라는 태국인들의 깊은 불심을 읽을 수 있었다.

타마몽콘 사원의 주지 위리안 스님(80)은 36년간 이 사원을 지키며 부속학교와 명상센터 등을 보유한 5만여평의 대규모 사원을 일궈낸 원력을 이렇게 달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참된 수행을 하며, 불자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주었을 뿐"이라고. 이 사원은 내년초 외국인을 위한 명상센터를 개설해 태국불교를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태국불교는 변하고 있다. 한국불교도 훌륭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불교의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바란다"고 강조하는 태국관광청 한국·일본 담당국장 아말라씨(58)의 말에서 태국불자의 자신감이 넘쳐났다.

태국=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여주 도곡리 좌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곡선미 돋보이는 고려불상

어깨까지 닿은 두 귀
몸체의 모습 사다리꼴

남한강 줄기 나즈막한 야산에 자리잡은 경기도 여주 도곡리 좌불은 나발의 머리에 육계는 작고 이마에는 백호공이 있다. 이마에서부터 시작된 우뚝한 코는 탐욕스러운 중생에 의하여 온전하지 못하다. 오랜 세월 노천에서 폭풍우와 눈보라를 맞으며 있다 보니 이끼도 끼고 먼지도 끼어 식별이 확연치않지만 살며시 뜬눈과 가볍게 다문 입가에는 미소가 엿보인다.

좌폭 164㎝, 좌고 190㎝, 견폭 102㎝, 두고 60㎝인 좌불은 화강암으로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늘어진 두귀는 어깨에 닿으며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각의 형태를 이루어 양감이 풍부하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의 몸에는 삼도가 없으며 옷깃이 몇치까지 나란히 흐른다. 양무릎 밖으로 흘러내린 두루마기식 불의를 덮고 굵은선으로 나타내 굴곡의 표현이 없이 몸체의 모습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좌대는 복련의 하대와 팔각의 중대석 그리고 앙련의 상대석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석 6면에는 팔부신중을 양각했다. 신체적 표현은 살아숨쉬는 듯한 생동감이 탄력있는 모델링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든 불상은 보는이로 하여금 아름다운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미풍에도 흔들린 듯한 옷깃 안면에 머금은 미소는 고통과 번뇌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유영렬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은 "신라 전성시대의 불상양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미와 섬세함이 떨어지는 등 신체의 요소 요소에서 지방화된 양식적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시대 조성된 것이다"며 "고려시대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조사신앙이 발달해 신라시대에 비해 불상조각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